

## <지난주 말씀>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나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살리는 사람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 갈등, 핍박, 위기가 와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복음의 사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이 선출하지만 큰 대제사장은 사람이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오직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큰 대제사장은 말씀 성취로 오신 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처녀의 몸에서 나서 오신 분입니다. 이 큰 대제사장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주중에 다른 교회 메시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다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고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왜 흑암이 무너지고 왜 성령이 역사하는지 아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선 안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다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고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왜 흑암이 무너지고 왜 성령이 역사하는지 아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선 안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만유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분이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흑암을 무너뜨리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걸 귀신이 압니다. 예수 내용도 모르고 예수 이름을 쓰면 귀신이 오히려 공격합니다.

## <본론>

### 1.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히5:1)

대제사장은 제사장 가운데서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은 예배입니다. 이 예

배하는 일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아마 대제사장도 한 사람이 아니고 시거나 절기마다 분리해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힘써 있음이라(히5:2)

이 대제사장은 사람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 또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예물도 필요합니다. 이 대제사장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도 용납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에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구분하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히5:3)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일과 대제사장이 자신의 속죄를 위해 예물을 드리는 일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대제사장이니 속죄가 필요없어, 그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훌륭하고 능력있는 대제사장도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높이지 말고 사람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히5:4)

대제사장의 직무는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존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걸 제사장 계파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히5:5상)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이렇게 오셨는데 대제사장도 부르심을 받아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사명, 천명을 발견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히5:5하)

말씀대로 성취되고 세우심을 받은 자가 큰 대제사장인 예수입니다.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국에만 해도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이 많습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언론에도 나옵니다. 자기가 신인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도 자기 마음대로 오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분이 큰 대제사장인 예수입니다.

## 2. 멜기세덱의 반차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히5:6)

여기서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와 창세기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 언제부터 제사장을 했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반차에서 온 대제사장으로 썼습니다. 반차라는 말은 신분과 계통을 뜻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열에서부터 내려온 제사장의 계열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제사장이고 이 때 십일조를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족보에서 온 게 아니란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족보에 예수님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족보는 하나님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주었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5:7)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이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제물이 되어 죽어야 할 십자가를 앞두고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실 목적이 제물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안하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히5:8-9)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걸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영원한 구원의 시작이자 결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 받으셨느니라(히5:10)

이런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가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대제사장을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슨 말입니까? 기쁨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가 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큰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걸로 말미암아 사탄을 멸하시고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그리스도로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셨다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예수만 말해야 하는지 비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각인이 안되면 사탄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죽으셨다는 것이 확정되면 하나님 만나는 길과 사탄 멸하는 권세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이면 됩니다. 이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 3.장성한 그리스도인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히5:11)

바울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고민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면 바울이 쉽게 말을 했겠지만 저 시대에 바울이 말하는 영적 비밀을 알아들겠습니까? 이 때 바울이 가장 고민한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설명을 하러 다니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알아들은 것입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히5:12)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지가 오래되어서 선생이 되어야 할 나이인데 여전히 초등학문과 율법에 묶여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 비유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영이 자라길 바랍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히5:13)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를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왜 맨날 젖만 먹느냐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히5:14)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이빨이 단단한 장성한 자는 이걸 씹어먹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문제, 사건, 고통, 핍박, 위기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현실과 사실과 진실에 걸려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걸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사람 말에 잘 속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 용만 당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좀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장성한 사람은 지각이 있습니다. 사물의 전체를 알고 의식하는 것이 지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감각이 전체를 보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성한 사람은 연단을 통과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 <결론>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안 붙잡는 자는 어린아이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나를 찾고 바꾸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올해는 바꾸어야 해요. 지난 날의 것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충 사는대로 살지 마시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세워서 정말 망대를 바꾸시고 여정을 찾고 이정표를 세우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